

인터넷 미디어의 ‘미국-이라크’ 전쟁 보도 경향과 담론구조

<오마이뉴스> 보도의 시간구조와 담론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백선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미디어인 <오마이뉴스>가 미국과 이라크 전쟁에 대해 어떠한 보도경향들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보도경향들을 지탱하고 있는 서사구조나 담론구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서사구조나 담론구조가 이번 사안을 어떠한 방향으로 의미짓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가 우리사회에서 함축하고 있는 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2003년 3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9개월간의 <오마이뉴스>의 기사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을 4가지 국면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특히 D. Bell의 ‘뉴스 텍스트의 담론구조 모델’을 중점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나서 뉴스텍스트의 이데올로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구조와 사건구조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첫째, <오마이뉴스>는 기존 미디어들과는 다른 보도태도와 보도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존 미디어들이 이번 전쟁에 대한 진행과정에 주목하면서 ‘스트레이트’ 기사에 주력했다면, <오마이뉴스>는 전쟁의 발발원인, 배경, 대처 및 파장 등과 같은 ‘의견이나 해설 기사’에 주력하였다. 둘째, 기존 미디어들은 전쟁상황, 미국과 이라크의 전투현장, 사상자나 피해자 등과 같은 전투현장에 주목하고 있다면, <오마이뉴스>은 미국과 부시 대통령의 의도, 친미와 반미의 대립, 한국군 파견에 대한 문제제기 등과 같이 전투현장보다는 이 사안과 관련된 여타 사안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셋째, 기존 미디어가 사건에 대한 전체의 과정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의제 설정’이나 ‘여론 수렴’을 주도하고 있다. 넷째, 기존 미디어들이 서로 비슷한 시각과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데 반해, <오마이뉴스>

* back99@skku.edu

는 이들과는 다른 대안적 견해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마이뉴스>는 저널리즘 미디어로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번 사안에 대해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새로운 대안적 견해를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사회에 대한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인터넷 미디어, <오마이뉴스>, 미국이라크 전쟁, 담론구조, 시간구조

1.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은 4월 10일 바그다드 점령과 5월 1일 부시 대통령의 종전선언으로 일단락 지어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2003년 12월 14일에 바그다드 침공 이후에 잠적한 사담 후세인이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2003년 3월 20일 공습의 목적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면, 4월 10일 바그다드 함락은 침공의 상징적 종결이었으며, 12월 14일의 후세인 체포는 그것의 실질적 완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의 눈과 귀로 직접 접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디어에 의한 뉴스 전달이 객관적이며 공정한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며, 전쟁과 같은 비일상적이고 일탈적인 사건일 경우 미디어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집중되게 된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의 초강국으로서 이러한 분쟁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의 지원을 얻어내고자 하며, 자신을 '테러의 희생국', '정의의 사도', '평화주의자', '문명의 대변자' 등으로 규정하며 도덕적으로도 우위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슬람 국가들 역시 자신들의 정의와

도덕적 기준에서 미국을 공격하고 있으며, 미국을 이슬람 전체를 파괴시키려는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실제적인 분쟁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미디어를 통한 분쟁 역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미디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 전쟁은 이전에는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 미디어가 개입하면서 보다 복잡한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전의 매스미디어는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일반 수용자들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지만, 인터넷 미디어는 송신자와 수용자가 서로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보도도 하고 수용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기존의 미디어가 기사 텍스트를 통하여 의미를 생성하고, 뉴스 수용자는 이를 단지 수용하고 해석하는 '이중의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 인터넷 미디어에서는 뉴스 생산자와 수용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뉴스 텍스트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뉴스 텍스트의 의미도 생성하는 '복합의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뉴스 텍스트의 의미 생성의 중심이 뉴스 생산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뉴스 생산자와 수용자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언론의 매체적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성(interactiveness)', '하이퍼 텍스트성(hypertextuality)', '비전문성(non-professional)', '연성적 메시지성(soft message)', '일상생활성(everyday life)', '높은 공론장 가능성(high possibility of public sphere)', '커뮤니케이션의 평등성(equality of communication)'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인터넷 미디어가 어떻게 언론(뉴스) 미디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가 또 하나의 학문적 관심이 된다. 더욱이 인터넷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뉴스 생성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호작용성이 높아 뉴스에서 제기되는 이슈나

의제에 대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기대된다. 또한 인터넷 미디어는 전문 기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또 다른 특성이 인터넷 미디어의 비전문성이나 비숙련성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을 증대시켜 사회 내의 영향력을 진작시킨다. 특히, 주요 이슈나 안전들에 대한 사회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미디어가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어떠한 방식과 경향으로 보도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인터넷 뉴스미디어가 이번 전쟁을 보도하면서 생성하고 있는 담론이 무엇이며, 그러한 담론을 생성시키는 구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2. 기존 문헌 고찰 및 이론적 논의

1) 인터넷 미디어의 언론매체적 특성

역사적으로 뉴스란 그것을 담아내는 미디어에 의해 포맷과 내용이 결정되어 왔다. 신문 미디어의 연계로부터 시작되어 뉴스미디어의 출현은 20세기의 라디오와 TV를 통한 방송뉴스로의 확대를 거쳐, 오늘날은 인터넷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인터넷 뉴스의 생성을 주도하고 있다. 신문을 통한 뉴스로 인해 ‘저널리즘’이라는 분야가 생성되었듯이, 방송뉴스로 인한 ‘방송저널리즘’, 나아가 인터넷 뉴스로 인한 ‘인터넷 언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 이른바 ‘사이버 저널리즘’은 아직은 정형의 저널리즘 양태는 아닌 것 같다. 고전적 형태의 저널리즘이란 신문 현상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고,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라는 ‘일 대 다수’,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비상호작용’ 등을 근간으로 확립되어 왔다. 그로 인해, 뉴스를 생성하는

매스미디어에게는 권한과 더불어 높은 책임감과 그에 따른 윤리의식을 요구해 왔다. 즉, 뉴스 생성의 역할과 기능을 획득하고 있는 언론 미디어는 그 생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감이 뒤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미디어는 이러한 엄중한 책임감이 부여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인터넷 언론의 미디어적 특성이 기존 언론매체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 매체적 특성으로는 '상호작용성', '하이퍼 텍스트성', '비전문성', '연성적 메시지성', '일상 생활성', '높은 공론장 가능성', '평등적 커뮤니케이션성' 등을 들 수 있다.

상호작용성이란 뉴스 생성자와 뉴스 소비자 사이에 왕성한 상호작용을 일컫는다. 또한 인간과 매개되는 기계(인터넷)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 같은 상호작용성은 인터넷 언론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지만, 매스미디어의 특성과의 비교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이퍼텍스트성이란 인터넷 언론 텍스트의 질적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한 텍스트가 지닌 비선형성(nonlinearity)과 다중심성(multi-accentuality)을 일컫는 것으로서, 뉴스 텍스트가 시간적인 순차나 공간적인 크고 작음으로 인해 전개되고 있지 않으며, 주요 기사와 비주요 기사들 사이의 차이도 두드러지지 않음을 일컫는다.

비전문성이란 인터넷 언론의 기자들이 전문적인 기자들보다는 일반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기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보다는 비전문성을 자주 들어 내고 있음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의 기자들에게는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높은 전문성과 숙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 언론의 기자들에게는 이러한 높은 전문성과 숙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연성적 메시지성이란 인터넷 언론 텍스트의 독특한 성격으로서 일반인들이 기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기사의 주제나 내용이 사회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무겁고 심각한 것들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다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다. 같은 맥락에서, 일상생활성이란 인터넷 언론의 주요 주제가 바로 우리들의 일상생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높은 공론장 가능성이란 인터넷 언론이 지닌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상호 작용성으로 인한 특성으로 특정 이슈나 의제에 대해 토론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이를 하버마스(Habermas)의 유명한 개념인 ‘공론장(public sphere)’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더욱이 인터넷 언론의 주요 특성으로서, 매스미디어와 비교해서 훨씬 빈번하게 발생한다. 매스미디어 환경에서 매스미디어와 수용자들 사이에서 공론장은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생성되는데 비해, 인터넷 언론의 환경에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평등성’이란 일반 매스미디어 현상에서는 없는 것으로서, 뉴스 생산자와 뉴스 수용자들 사이의 위계가 없으며, 커뮤니케이션 상에서의 위계도 없이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요 이슈나 의제에 대해 견해를 피력할 때, 누구나 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으며, 특별하게 험담이나 극단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다면 커뮤니케이션 기회는 보장되어 있다.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균등성이 인터넷 언론에 대한 관심을 단시간 내에 끌어올렸고, 뉴스 수용자들의 폭발적인 참여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인터넷 언론의 영향성을 배가시키게 된 근원으로 여겨지게 되었다(황용석, 2000; 박선희, 2001; 백선기, 2001, 2003a 등 참조).

2) 인터넷 미디어의 언론매체로서의 역할 및 기능

우리사회에서 인터넷 미디어가 뉴스를 다루면서 대안적 언론매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 것은 아주 최근의 상황이다. 1998년 기존 매스미디어,

특히 조선일보를 패러디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창설된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가 그 효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딴지일보는 직설적 풍자와 신랄한 독설로 사이트 개설 두 달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어서는 엄청난 대중적 인기와 호응을 끌었다(한겨레, 1998, 9월 29일자).

이러한 대중적 호응과 관심도는 또 다른 인터넷 미디어의 창간을 유도하였는데, 바로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이었다. 2000년 2월에 창간한 '오마이뉴스'는 기존의 인터넷 신문들과 완전히 차별되는 새로운 인터넷 언론매체의 모델을 창출하였다. 그것은 독자적인 신문, 나아가 언론체제를 갖추면서, 기존의 종합 일간지들과의 경쟁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일반 시민의 기자화'를 모토로 하면서 일반인들을 주요 기자들로 활용하고,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 매체의 내용을 패러디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독자적인 기사내용들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다루는 뉴스의 성격도 기존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들 중심의 '경성뉴스(hard news)'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일상적 삶에서 비롯되는 사건과 사안에 주목하는 '연성뉴스(soft news)'를 생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과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오마이뉴스'가 대중적으로 성공하면서 인터넷 신문의 창간이 줄을 이었는데, 그 중 단기간에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한 것은 '프레시안'이다. 2001년 9월 창간한 '프레시안'은 기존 신문사들에 있었던 중견 언론인들이 모여서 만든 인터넷 신문이다. '프레시안'은 '오마이뉴스'와 다르게 심층 취재와 논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인터넷 언론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일반 대중의 참여를 불러일으킨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당시 기성 언론이 지니고 있었던 지나친 보수성과 권력성에 대한 반발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이유인 일반 대중의 참여는 바로 ‘오마이뉴스’의 창간의 방향성과도 일치하게 된다. ‘오마이뉴스’는 창간 초기에 개개의 모든 시민이 기자가 되며 그들의 일상이 하나하나가 바로 기사가 되는 새로운 유형의 뉴스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모든 생활인의 기자화’와 ‘생활체험의 기사화’인 것이다(진행남, 2002, p.4).

‘모든 생활인의 기자화’란 바로 ‘오마이뉴스’의 기자 구성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체 기자들 가운데 일반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7.3%로서 거의 과반수를 이루고 있다(진행남, 2002, p.53). 언론 매체의 영향성이 바로 대중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마이뉴스’는 이미 그 창간 초기부터 이러한 대중성을 확고하게 확보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대중성은 또한 오마이뉴스의 특성과도 연계되는데, 바로 기사의 ‘일상화’와 ‘연성화’ 경향이다. 박선희 연구(2001)에서, ‘오마이뉴스’의 기사 주제를 분석한 것을 볼 때, 정치(13.2%), 통일/외교(3.3%), 경제(0.5%) 등과 같은 경성뉴스가, ‘문화(23.1%)’, ‘사는 이야기(19.2%)’, ‘시민운동/소외집단(15.9%)’ 등의 연성뉴스들에 비해 훨씬 비중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다른 인터넷 언론에 비해서도 톱기사의 주제의 경우도, 사회/문화/정보통신 등의 연성뉴스가 79.7%를 차지하여, 정치(16.9%), 통일/외교(1.7%), 경제(1.7%)의 경성뉴스에 비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박선희, 2001, p.142).

진행남의 연구(2002)에서도, ‘오마이뉴스’에서 자신의 체험이나 주변의 일들을 수필체로 구성하는 ‘신변잡기’가 전체 기사들 가운데 31.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진행남, 2002, p.53). 이는 ‘오마이뉴스’가 정치 사회 및 경제 같은 중요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비롯되는 사건이나 사안들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오마이뉴스’의 전체 기자들의 전문분야를 파악해 보면, ‘지역(25%)’, ‘문화(10.9%)’, ‘사는

이야기(10.9%)', '시민운동/소외집단(9.8%)' 등의 일상적인 분야를 전문분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선희, 2001, pp.138~139).

두 번째 이유인 '기성 언론의 보수성에 대한 반발'은 이들 인터넷 신문들의 창간사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딴지일보'가 기성 보수 언론의 대표적인 '조선일보'에 대해 딴지를 걸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도 기성 언론의 보수성을 탈피하고, 나아가 그들의 권력화를 비판하며, 그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창간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홍성구는 나아가 인터넷 미디어가 지니는 독특한 성격이 인터넷 미디어와 기성 미디어와의 차별성을 낳고, 또한 그로 인해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미디어는 뉴스 생성에 있어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이분법적인 또는 이중적인 구분을 해체하고, 언론매체의 사회적 공적 권위를 해체하거나 도전하게 되며, 경제적 장벽이 크지 않아 창간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손쉽게 언론매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참여를 개방하여 사회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공론이나 포럼을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고, 여러 기관들과의 연계나 참여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풍부하고 다양한 준거자료들을 통하여 사건이나 사안들에 대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견해를 지닐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홍성구, 2003; 정윤식, 2003; 오연호, 2001 참조).

끝으로, 인터넷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인터넷 언론이 지닌 '사회 공론장'의 형성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많은 일반 기자들의 참여와 그들의 접근이 용이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참여도의 확충은 바로 기존 언론매체들의 '사회 공론장' 기능의 약화나 '사회 의제 설정' 기능의 약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 같은 기성 언론매체의 사회의제 설정 기능의 약화와 대조적으로 강화되는 인터넷 매체의 사회의제 설정 기능이 바로 인터넷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급격하게 신장시키게 되는 연유인 것이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오마이뉴스’는 우리사회의 인터넷 언론을 선도하고 있는 매체임과 더불어, 그 영향력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이다. 2003년 뉴스매체 영향 평가에서 제6위에 자리매김한 바 있고, 그것도 KBS, MBC, 조선, 동아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중요한 매체로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계하여,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표적 인터넷 언론인 ‘오마이뉴스’가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어떻게 보도하였으며, 그러한 보도를 통해 어떠한 의제를 설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담론을 형성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학문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인터넷 뉴스매체인 ‘오마이뉴스’는 미국과 이라크 전에 대한 보도에서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 연구문제 2 이러한 보도경향은 어떠한 의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의제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먼저, 이번 전쟁은 2003년 3월 20일부터 2003년 12월 19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9개월간의 긴 기간을 통해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 전체를 다룰 수는 없었고, 몇 개의 국면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전 전쟁은 전체적으로 볼 때 4 국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제1국면은 2003년 3월 20일 전쟁 발발에서 5월 1일 미국 부시 대통령의 한시적 종전선언 기간이고, 제2국면은 5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전쟁의 '휴먼기'이기도 하고 미국의 '통제 및 관리 시기'이기도 하다. 제3국면은 8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기간으로 이라크 내에서는 잠정적 휴면기이나 내외적으로는 각종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4국면은 '잠정적 종결기'로서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후세인이 전격 체포된 이후의 시기인 것이다.

이들 4국면을 근간으로 하여, 각각의 국면 시기에 나타났던 전쟁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들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이들 기사들은 다시 기사의 기본 구성요건들로 분리되어 분석되었고, 그것들 사이의 연계관계를 밝히기 위해 담론구조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 연계구조와 그에 따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구조'와 '담론구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담론구조는, 특히, 의제설정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담론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서 기사가 지닌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또 다시 기사를 시간구조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반 다이크(van Dijk)는 뉴스 보도를 하나의 담론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담론은 발화하는 주체, 발화의 대상, 발화의 문맥 및 맥락 등으로 구성되며, 이 작용을 통해 발화의 텍스트 의미가 구성되거나 변화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뉴스란 그것이 생산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뿐만 아니라 기자, 독자 및 시청자들의 심리적인 상황까지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한다. 또한 뉴스라는 생산물은 뉴스 생산의 내부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관계들을 반영하고, 외부적으로는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제반 관계들의 영향 하에서 만들어지는 복합 생산물이라고

<표 1> 기사 자료를 구분하는 부가적인 범주

요소	내용
출처 (attribution)	기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에 해당하는 출처는 항상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통신사의 이름 혹은 저널리스트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개요 (abstract)	리드(lead sentence)나 뉴스 기사의 도입부(intro)로 구성된 것으로 헤드라인이 포함된다. 리드는 기사의 중심적인 사건을 보도하며, 어떤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부수적인 사건도 보도한다. 리드 그 자체에는 반드시 그 사건과 관련된 행위자들과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본문(story)	기사 본문 그 자체는 한 개 이상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다시 한 개 이상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건은 행위자와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야만 하며, 대개는 시간과 공간에 관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 정확한 정보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에피소드는 공통된 장소 혹은 일련의 뉴스 행위자들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의 집합체이다.
배경 (background)	배경 범주는 현재 행위에 앞서서 발생한 특정 사건을 보도한다. 어떤 사건은 보다 더 이른 상황에서 현재처럼, 즉 시간적으로는 앞서 일어났지만 그 사건 당시의 상황대로 뉴스 기사화되는 이전의 사건들에 해당된다. 만약 배경이 가까운 과거를 넘어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것은 '역사(history)'로 분류된다.
논평 (commentary)	논평은 행위에 대한 저널리스트 혹은 뉴스 행위자의 현재 시점에서의 관찰을 제공해주며, 발생한 사건에 대한 평가와 설명에 해당된다(사건 그 자체에 대한 실제 서술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다른 상대방의 언어적 반응). 이것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맥락을 제공하거나 그 사건에 대한 평가적인 설명 혹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어 나갈지에 대한 예측을 제공해준다.
팔로우 업 (follow-up)	팔로우-업(후속기사)은 한 사건의 주요 행위에 잇따르는 어떤 행위를 보도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있을 행위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다. 여기에는 제3자의 언어적 반응 혹은 비언어적 결과가 포함된다. 한 기사 속에서 특정 행위가 주요한 행동으로 다루어진 후에 잇따라 일어난 행위를 보도하기 때문에 팔로우-업은 연속적인 최신 기사의 주요인이 된다(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를 팔로우-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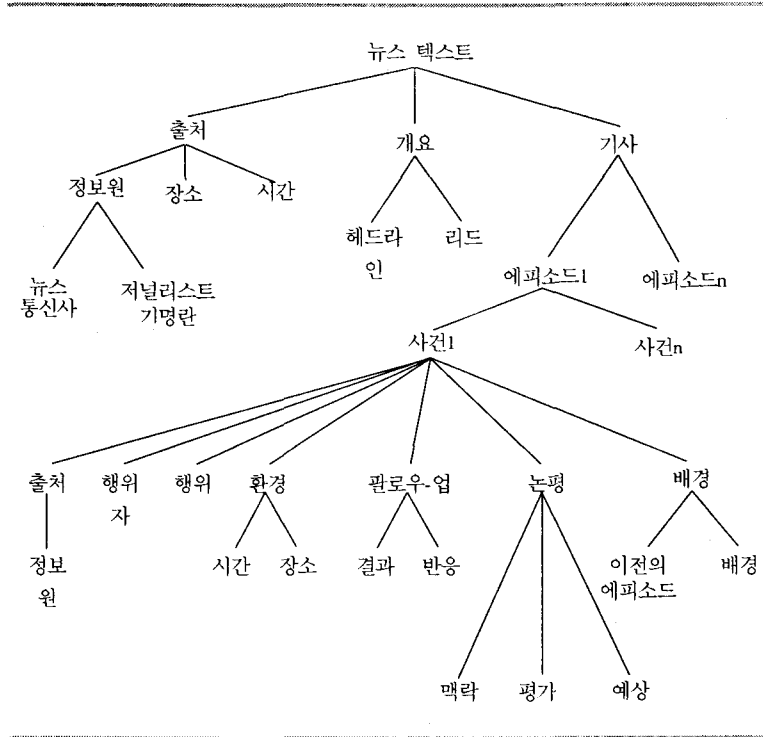
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러한 관계는 뉴스의 의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뉴스 생산자의 부호화를 통한 의미가 수용자들의 해독화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르게 표출되기도 한다(van Dijk, 1985a, 1997a, 1997b, 1998; 백선기, 2003a, 2003b, 2003c 참조).

이처럼 하나의 특정한 사건에 대한 담론은 단일한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사건을 둘러싼 주변의 여러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건이나 기사와 관련된 여러 맥락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궁극적인 함의를 밝혀낼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사건에 대한 하나의 기사를 분석하더라도 그 기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하위 구조들을 분석해야 보다 정교하게 의미 구조를 밝혀낼 수 있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벨(Bell)의 분석 틀을 이용하고자 한다(Bell, 1998; 백선기 역, 2004a 참조).

텍스트는 뉴스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뉴스 내용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뉴스 텍스트를 엄밀하게 분석해야 뉴스 내용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뉴스 텍스트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언어학적으로 능숙하게 분석하는 것은 겉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뉴스의 잠재적인 이데올로기를 밝혀내는 작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뉴스 기사에 대해서 단순하게 검토할 때조차도 복잡한데, 기사에서 기술되고 있는 사건이 우리가 가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자신들이 소비하고 있는 뉴스 생산물이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수용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뉴스를 하나의 생산물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놀라운 사실일 수 있는데, 뉴스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이와 같은 뉴스 생산물의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 1> 뉴스 텍스트의 담론구조 모델 (Bell, 1991, p. 171)



작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미디어 담론 분석 방법은 벨이 고안한 것으로 이 방법은 일반적인 기사 분석 틀로부터 반 다이크의 뉴스 담론 분석틀뿐만 아니라 특히 라보프(Labov)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서 그 요소를 뽑아내어 만든 것이다. 라보프의 분석틀은 가장 잘 알려진 것들 중의 하나로서 개요(abstract), 정향(orientation), 행동(action), 평가(evaluation), 해결(resolution), 종결(coda)의 여섯 개 요소를 포함하

고 있다.

또한 뉴스 기사에서의 시간 분석은 벨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기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석틀(framework)'은 공통적으로 각각의 분석 틀에 해당하는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뉴스 기사에 대한 담론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사는 출처(attribution), 개요(abstract), 기사 본문(story proper)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핵심적인 사건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요소뿐만 아니라 배경(background), 논평(commentary), 팔로우-업(follow-up)의 범주가 있으며, 이는 사건 발생의 시간적 흐름인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4. 결과 및 논의¹⁾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모든 국면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한 분석을 지면 관계상 제시하지 못하여, 각 국면의 대표적인 기사를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제1국면의 대표적인 기사는 2003년 3월 20일 전쟁발발시의 기사이고, 제2국면의 대표적인 기사는 2003년 7월 11일의 기사이며, 제3국면의 기사는 2003년 11월 14일의 기사이고, 제4국면의 마지막 시기의 대표적인 기사는 12월 17일의 기사이다.

1) 제1국면의 기사 분석: 2003년 3월 20일 기사에 대한 사건구조, 시간구조 및 담론구조

1) 지면관계상 전체 기사 분석틀을 다룰 수 없어, 각 국면의 대표적인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부분적으로 제시하였음.

<표 2> 3월 20일 오마이뉴스 기사의 사건구조와 시간구조

3	HL	20일 오후, '국민의 힘' 대이라크전 반대시위 벌여	0
김태섭 기자			
2	S1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개시한 3월 20일, 오후 2시 30분경부터	-1
3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은 미대사관 옆의 KT 본사 앞에서 미국의 대이라크전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0
3	S2	피켓시위에 참여한 김명렬(남, 46세) 씨는 "무고한 수많은 이라크 국민들이 죽어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피켓사 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부시는 지금이라도 이라크 전쟁을 중지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
3	S3	또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지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쟁에는 절대 반대한다. 오늘 노 대통령이 미국의 이라크전을 지지한다는 대국민담화문도 발표했지만, 약소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치욕스럽고, 창피하다."고 덧붙였다.	0
3	S4	수업이 끝나자마자 버스를 타고 교보문고에서 책도 볼 겸, 시 위에도 참여할 겸해서 왔다는 이성준(남, 14세) 군은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미국과 미군을 참 좋아했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적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에 미국과 미군이 세계에서 나쁜 일도 많이 하며 우리나라에 주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0
5	S5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쟁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도 불만이 많다. 물론, 약소국이지만……. 그래서 우표수집하려고	+2
3		사두었던 노무현 대통령 우표시리즈도 팔아버렸다 너무 분하고 슬프다"고 말을 끝냈다.	0
4	S6	한편, 오후 7시경부터 교보문고 앞에서는 '미군장갑차어중생고 신희순, 심미선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원회'와 '전쟁반대평화실현 공동실천' 공동으로 이라크 침공 규탄대회를 열었다	+1

제1국면의 대표 기사인 2003년 3월 20일 기사를 사건구조, 시간구조 및 담론구조의 프레임으로 분석하였다.

(1) 무엇을

① 헤드라인 : 헤드라인은 국민들이 대이라크전 반대시위를 벌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 주체가 '국민의 힘'이란 단체임을 밝히고 있다.

② 리드 :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미국 대사관 옆에서 전쟁반대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라크전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해 '국민의 힘'이란 단체가 항의와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헤드라인에 대한 추가설명으로 보인다.

③ 사건 :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가. 미대사관 옆에서 피켓시위를 벌임(HL, S1, S2, S3, S4, S5), 나. 오후 7시경 교보 문고 앞에서의 이라크 침공 규탄대회(S6).

생활 정치 네트워크라는 '국민의 힘'이 시위의 주체이며,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터뷰(S2, S3, S4, S5)로 미대사관 옆에서의 시위사건이 구성되며, 교보문고 앞에서의 시위는 단지 사건만 제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위사건들만을 기사화시킴으로써 미국의 이라크전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④ 헤드라인, 리드, 기사 : 헤드라인-리드-기사의 흐름은 이라크전에 대한 국민정서를 보여주려는 듯하다. 헤드라인-리드에서는 사건의 전체적 사실을 보여주는 반면, 기사에서는 대이라크전에 대한 평가와 파병을 실행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등장한다. 기사에서는 이런 평가 외에도 반미감정 및 미군철수를 표출하는 대목(S4)이 있다. 따라서 '파병문제'는 미국의 이라크전과 미군주둔에 대한 반감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가진 문제로 제시된다.

(2) 누가

① 기사 출처 : 기사는 김태섭 기자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② 정보원 : 인터넷 언론이라는 특성상 김태섭 기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취재된 것으로 보인다.

③ 뉴스 행위자 : 뉴스 행위자로는 이라크 전쟁을 개시한 ‘미국’, 시위를 벌인 ‘국민의 힘’, 그리고 시위에 참가한 ‘김명렬’ 씨, ‘이성준’ 군, 교보문고 앞에서 시위를 벌인 ‘미군 장갑차 여중생인 고 신호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 대책위원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단체를 들 수 있다. 크게 단체로는 세 단체가, 개별적인 인터뷰 대상자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 개별적 인터뷰 대상자는 단체의 시위 목적과 이유에 대한 구체적 의견표명의 창구로서 제시되고 있다.

(3) 어디서

① 장소 : 기사에서 나타나는 장소는 가. 미 대사관(S1), 나. 교보문고 앞(S6)이다. 이 두 장소는 미대사관에 근접한 장소이다.

② 장소구조 : 이라크전이 일어난 상황에서 전쟁도발국인 미국에게 항의할 수 있는 장소인 미대사관 앞과 관련된 장소가 기사에 나온다. 미국에 대한 비판과 반감을 전달할 상징적 장소로서 대사관이 의미화 되고 있으며, S4에서 이야기되는 미군주둔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한층 더 장소로서의 우리영토를 강조시키고 있다. 즉 정서의 흐름을 볼 때, 이라크전에 대한 반감은 미군주둔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4) 언제

① 시간 : 기사에서 언급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이라크전이 발발한 3월 20일, 나. 시위가 일어난 오후 2시 30분경, 다. 오후 7시, 라. 기사가 쓰인 오후 7시 26분. 즉 기사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인 시위 시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② 시간구조 : 중심 사건인 ‘국민의 힘’의 대이라크 반대시위를 0으로 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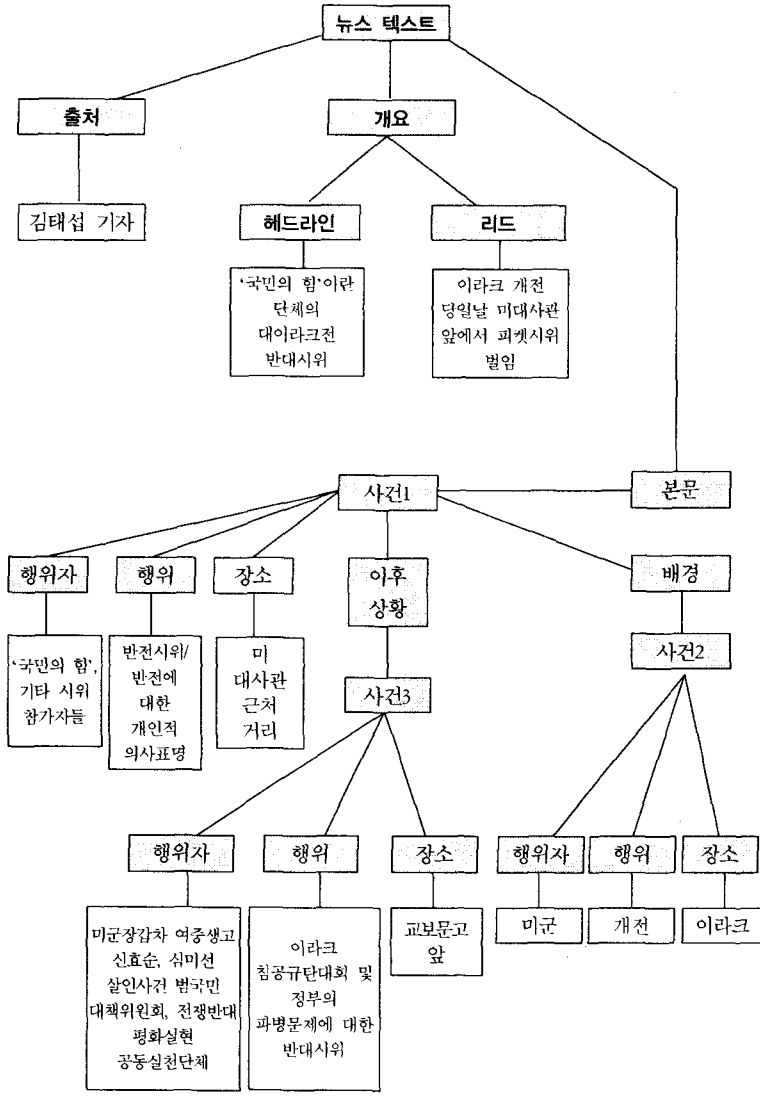
이전, 이후의 사건들의 순서를 통시적으로 배열해보면 본 기사가 -2, -1, 0, 1, 2의 시간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이전의 사건은 -2에 위치하는 이성준 군의 인터뷰 상에서 등장하는 과거시점(초등학교 4학년)이며, 가장 이후의 시점은 국군파병이다. 이런 시간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과거의 이미지나 평가(노 대통령과 미군에 대한)와 현재의 이미지나 평가의 뚜렷한 차이와 대비의 배치이다. 즉 과거 이미지가 현재 이미지에 의해 허위로 드러나면서 미래의 파병에 대한 평가를 신중히 해야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③ 배경 : 본 기사의 중심적 사건이 대이라크전에 대한 반대시위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배경이 되는 것은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개전일 것이다. 즉 배경사건과 중심 사건의 간극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체적인 인터뷰 대상자의 인터뷰를 보면, 사적으로 배경이 되는 것은 '과거 초등학교 시절의 미국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이다. 이는 현재와 시간적으로 큰 간극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이라크의 개전으로 인해 이런 배경이 되는 과거의 이미지가 등장함으로써 현재의 이미지와의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④ 논평 : 기사에서 직접적 논평을 했다기보다 취재원의 견해에 부합되는 논평을 인터뷰 대상자들로부터 이끌어내고 있다. 김명렬 씨는 S2에서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살상하는 미국에 대해 이라크전 중지를 요청하고 있고, S3에서 노 대통령의 전쟁지지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성준 군의 S4에서 반미감정을, S5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심한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인터뷰 대상자를 통한 간접적 논평은 기자의 직접적 논평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와 일반화의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⑤ 뒤따르는 내용 : 뒤따르는 내용은 7시의 이라크 참공 규탄대회와 이라크에 대한 정부의 파병문제이다. 결국 기사의 주안점은 이라크전이 우리나라에서 파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볼 수

<그림 2> 3월 20일 오마이뉴스 기사의 담론구조



있다. 기사는 파병문제를 차후에 매듭지어야 할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과 담론구조

① 사건구조 : 전체의 사건은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에서의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와 이에 따른 실천적 시위이다. 기사는 단순한 사건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인터뷰 내용을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다. 장소로 등장하는 미대사관은 이런 시위의 대상이며,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라 할 수 있다.

② 담론구조 : <그림 2>에서 제시되고 있다.

③ 일관성과 혼돈 :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철회와 대이라크전의 반대가 하나의 일관성을 갖추는 의견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얼핏 볼 때 헤드라인에 등장한 '국민의 힘'이란 것이 특정단체인지 국민일반의 힘이란 것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는 보는 사람에게 반미, 반전이 전체국민의 의사인 듯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기사를 대표할 헤드라인이라면 이런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할 것이다.

2) 제2국면의 기사 분석: 2003년 7월 11일 기사에 대한 사건구조, 시간구조 및 담론구조

제2국면의 대표 기사인 2003년 7월 11일 기사내용에 대한 사건구조, 시간구조 및 담론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표 3> 7월 11일 오마이뉴스 기사의 사건구조와 시간구조

행 번호	구분	내용	점수
5	HL	쓰러린 실패와 또 다른 시작 이라크전은 새로운 모색의 시작이다 김광진 기사	-1
4	S1	이라크 전쟁을 찬성했던 국가들이 있었다.	-2
4	S2	그 국가들 중에는 이라크전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확대하려는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있었고,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이끌어가는 강대국의 눈치를 살펴야 했기에 마치못해 찬성을 했던 국가들이 있었다.	-2
4	S3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강대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었다.	-2
4	S4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 미국은 일찍부터 이라크 정부의 전복과 이라크에 걸린 정치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자신의 국가적 목표로 분명히 규정하였다.	-2
4	S5	UN의 입장과 상관없이 여하한 경우에도 자신의 국가적 이익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전방위적인 외교공세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국의 전쟁을 반대한 국가들이 있었던 것이다.	-2
	S6	이라크에 대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의 여타 나라들이 이라크 침공을 반대한 것은 국제역학의 관점이나 지정학적, 석유자원 확보와 그에 대한 이권이란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S7	그러나 특별한 이권이 걸려있지도 않는 약소국들 중에, 21세기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제국을 이룩한 미국의 전쟁을 반대한 국가들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S8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S9	전통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이익이 걸린 전쟁에 당연히 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아랍권의 일부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앞마당이었던 멕시코와 남미국가들이 미국이 그토록 강력하게 추진한 전쟁에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있는 일이다.	

구분	담론구	내용	점수
1	S10	그동안 아랍권의 일부 국가들의 정부는 자신의 권력을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유지해 왔었다.	-5
1	S11	그런 정부를 꺾보듯이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편파적 입장 등 중동지역 국가에 대해 미국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5
1	S12	아랍민중의 자결권을 무시하는 이런 미국의 행태로 인해, 중동 지역의 국민들 사이에는 광범위한 반미감정이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부는 충실하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왔다.	-5
1	S13	정권기반이 취약한 이들 국가의 운영자들로서는 국민들의 요구보다 미국의 요구를 더 잘 따르는 것이 정권유지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5
1	S14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들끓는 반미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 왔던 것이다.	-5
1	S15	그러던 그들이 이라크 침공 때는 더 이상 미국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5
1	S16	일부 국가는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기까지 했다.	-5
1	S17	그것은 더 이상 미국의 요구에 순응할 경우, 정권의 유지가 힘들 정도로 국민들의 정서가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5
2	S18	이러한 분석은 동남아 회교권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2	S19	이들 국가의 국민들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공감되고 있는 이라크 침공에 대한 부당함과,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4
2	S20	더욱이 이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지만 국민의 다수가 회교 신도인 나라들이 아니었던가.	-4
2	S21	회교 형제국에 대한 침공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1997년의 금융위기를 겪은 바 있는 이들 국가의 정부들마저도 미국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3	S22	멕시코는 어떤가.	-3
3	S23	NAFTA 가입으로 멕시코의 거시적 경제는 안정되어 가는 것 같으나, 미국 농산품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었던 농민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3

3	S24	농민의 위기는 결국 전체 국민의 위기가 된다.	-3
3	S25	농촌이 붕괴되면서 도시로 밀려드는 거대한 인력의 존재는, NAFTA 후 늘어난 봉제 임가공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여건마저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3
3	S26	늘어나는 공장의 일자리보다, 농촌에서 물려나오는 대기노동자의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3
3	S27	남미국가들도 마찬가지다.	-3
3	S28	남미 각국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계은행 체제에 편입되었고, 그로 인한 폐해가 현재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들 국가들이다.	-3
3	S29	오랜 기간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 국가 기간산업은 외국인의 소유로 넘어갔다.	-3
3	S30	그들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혹한 감원을 실시했다.	-3
3	S31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상이 비정규노동자가 되었다.	-3
3	S32	그 결과 노조가 붕괴되고 노동조합은 약화되었다지만, 토지가 없는 농민과 실업자들은 이제 이들 국가의 정권의 향방과 정책결정에 유례가 없는 강력한 압력세력이 되고 있다.	-3
	S33	그들은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S34	노동조합운동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배경으로 경제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이라면, 이들 빈민들의 투쟁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의 생존적 차원의 투쟁이기 에 쉽게 진압되기도, 와해시킬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 되어 가고 있다.	
3	S35	이들은 아이들과 여인들을 앞세워 도로를 점거하고 정부를 압박한다.	-3
3	S36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경작하지 않는 부채지주의 농토를 무단 점거해버린다.	-3
3	S37	그리고 이들은 단지 생존권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3
3	S38	자신들을 이렇게 내몬 장본인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이라크와 같은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반대한다.	-3
3	S39	그러나 이 모든 반대세력들의 열정적인 전쟁반대 노력과 한줄기 여린 희망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제국은 자신이 목표로 삼았던 하나의 국가를 간단하게 점령해버렸다.	-3

담론구조	기사	비고
S40	그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마치 공상과학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을 주었다.	
S41	이제 그들에게 전쟁이란 쌍방이 피를 흘리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장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을 제압하느냐 하는 게임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5 S42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동안 전 세계 국민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부들이 힘을 뭉쳐 막으려했던 전쟁은 결국 일어났다.	-1
5 S43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다.	-1
5 S44	한때 세계를 뒤덮던 '평화의 열망이 세계를 지킬 수 있으리란 희망에 찬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버렸다.	-1
5 S45	제국은 그토록 강력했던 것이다.	-1
5 S46	그러나 쓰러린 실패는 끝이 아니다.	-1
5 S47	그것은 또 다른 승리를 향한 시작이다.	-1
S48	사람들은 말한다.	
S49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유지확산하기 위해 가까이 전쟁 국가의 역할을 하는 마다하지 제국에 맞서려는 헛된 노력을 버리라고.	
S50	또 사람들은 말한다.	
S51	우리에게 남은 기회는 이미 대세로 다가온 세계적 질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입되는 것뿐이 아니냐고 말한다.	
S52	또 그들은 말한다.	
S53	무력까지 동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제국의 경제적 침탈행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고.	
S54	나는 대답한다.	
S55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고.	
S56	그러나 대안의 싹은 이미 우리들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S57	제국의 힘이 강력하지만, 그 힘을 자의적이고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제국은 도덕성을 잃었다고.	
S58	부당한 힘의 거대함에 직면해서 우리는 이미 조금씩 자신의 의지를 싹틔우고, 키우고, 전파하는 자발적인 노력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느냐고.	

번호	기사	페이지
6 S59	효순이, 미선이 촛불집회에서부터 이라크전 반대 집회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우리 안의 에너지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거대하게 분출된 적이 있었는가?	0
6 S60	비록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역사상 이토록 전 세계의 민중이 단합하였던 적이 있었는가?	0
6 S61	자국의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여,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적이 있었는가?	0
6 S62	그리고 그러한 힘들이 그들의 정부로 하여금 거대한 제국에 반대표를 던지게 하지 않았는가?	0
6 S63	제국이 세상을 이렇게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적 단위에서 제국의 힘에 반대하고 나서기는 힘들다.	0
6 S64	그러나 제국의 힘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삶의 질곡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0
6 S65	그리고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용기를 얻는다.	0
6 S66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 처한 사람보다 더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0
6 S67	결국 그들의 힘이 세계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하나 둘씩 국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0
6 S68	그러나 북핵문제의 경우처럼 제국은 다시금 하나하나의 국가를 압박하여 오고 있다.	0
6 S69	그토록 거대한 반대의 불길이 일어도 제국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간단히 이라크를 제압해 버렸듯이 또 다른 하나의 국가를 쉽게 황폐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0
6 S70	그러나 모순이 심할수록 그에 대한 저항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0
6 S71	가장 많은 것을 내어준 남미에서 저항의 불길이 가장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0

(1) 무엇을

① 헤드라인 : 헤드라인은 ‘쓰러린 실패와 또 다른 시작, 이라크전은 새로운 모색의 시작이다’로 사건을 바라보는 기자의 시각이 부각되어 있다.

② 리드 : 리드는 거대 담론의 처음이 되는 사건을 비교적 침착한 톤으로

풀어가고 있다.

③ 사전 : 이 기사는 이라크전을 두고 미국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한 국가들의 이면에 있는 그 배경이 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사전은 크게 대략적으로 아랍, 동남아시아, 남미,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들을 병렬로 나열하고 있다.

가. 그들(아랍권)이 이라크 침공 때는 더 이상 미국에 협조를 하지 않았음(S15), 일부 국가는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기까지 했음(S16), 더 이상 미국의 요구에 순응할 경우에 정권의 유지가 힘들 정도로 국민들의 정서가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S17).

나. 이러한 분석은 동남아 회교권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S18), 이들 국가의 국민들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공감되고 있는 이라크 침공에 대한 부당함과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고 있었음(S19), 회교 형제국에 대한 침공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1997년의 금융위기를 겪은 바 있는 이들 국가의 정부들마저도 미국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음(S21).

다. 멕시코는 어떤가(S22), NAFTA 가입으로 멕시코의 거시적 경제는 안정되어 가는 것 같으나 미국 농산품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었던 농민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고 있음(S23), 남미국가들도 마찬가지로(S27), 남미 각국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계은행 체제에 편입되었고 그로 인한 폐해가 현재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곳임(S28), 오랜 기간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 국가 기간산업은 외국인의 소유로 넘어감(S29), 자신들을 이렇게 내몬 장본인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이라크와 같은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반대함(S38).

라. 효순이, 미선이 촛불집회에서부터 이라크전 반대 집회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우리 안의 에너지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거대하게 분출된 적은

없었음(S59), 자국의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여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적은 없었음(S61), 그리고 그러한 힘들이 그들의 정부로 하여금 거대한 제국에 반대표를 던지게 했음(S62), 결국 그들의 힘이 세계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하나 둘씩 국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임(S67)으로 나타난다.

④ 헤드라인, 리드, 기사 : 이 기사는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나타나듯이, ‘쓰라린 실패와 또 다른 시작, 이라크전은 새로운 모색의 시작이다’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시선과 그에 대한 이해관계 및 배경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에세이 톤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의 전체 내용은 이에 대한 상세한 묘사로 이루어질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누가

① 기사 출처 : 해당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오마이뉴스의 김광진 기자가 전송한 기사라고 언급되어 있다.

② 정보원 : 전체 기사에서 정보원의 존재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다만 기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많이 반영한 듯 보이고 있다.

③ 뉴스 행위자 : 이 기사의 행위자는 S9에서 ‘아랍권의 일부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멕시코와 남미국가들’, S10에서 ‘아랍권의 일부 국가들’, S18에서 ‘동남아 회교권 국가’, S22에서 ‘멕시코’, S27에서 ‘남미국가들’, S59에서 ‘우리(우리나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주축이 되어 벌인 이라크전을 찬성할 것이라 여겼던 친미국가들이 여론상으로는 반대하고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낸 배경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어디서

① 장소 : 이 기사의 경우에는 사건의 장소로서 특정한 지명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기사의 행위자가 국가별 단위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장소로는 S9에서 '아랍권의 일부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멕시코와 남미 국가들', S59에서 '우리(우리나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장소구조 : 이 기사에서 나타난 장소들은 이동이 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소구조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4) 연제

① 시간 : 이 기사에서는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시각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라크전을 반대한 상황의 흐름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따름이다.

② 시간구조 : 시간구조는 0, -1, -2, -3, -4, -5의 단순한 시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③ 배경 : 이 기사의 배경은 S17에서 '그것은 더 이상 미국의 요구에 순응할 경우, 정권의 유지가 힘들 정도로 국민들의 정서가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 S18에서 '이러한 분석은 동남아 회교권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S19에서 '이들 국가의 국민들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공감되고 있는 이라크 침공에 대한 부당함과,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고 있었음', S28에서 '남미 각국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계은행 체제에 편입되었고 그로 인한 폐해가 현재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곳임', S29에서 '오랜 기간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 국가 기간산업은 외국인의 소유로 넘어감', S32에서 '토지가 없는 농민과 실업자들은 이제 이들 국가의 정권의 향방과 정책결정에 유례가 없는 강력한 압력세력이 되고 있음', S38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내몬 장본인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이라크와 같은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반대함', S68에서 '북핵문제의 경우처럼 제국은 다시금 하나하나의 국가를 압박하여 오고 있음', S70에서 '그러나 모순이 심할수록 그에 대한 저항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임'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친미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국민적 정서를

담보하고 있는 배경에서 기인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④ 논평 : 이 기사는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기존의 친미국가들의 입장과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기자의 논평 및 예측이 실려 있는데, S70에서 '그러나 모순이 심할수록 그에 대한 저항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임', S71에서 '가장 많은 것을 내어준 남미에서 저항의 불길이 가장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을 통해서, 친미국가들이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것이 단순한 국익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정서를 많이 감안한 새로운 여론이 그들 국가들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뒤따르는 내용 : S69의 '그토록 거대한 반대의 물결이 일어도 제국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간단히 이라크를 제압해 버렸듯이 또 다른 하나의 국가를 쉽게 황폐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임, S70의 '그러나 모순이 심할수록 그에 대한 저항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을 보면, 앞으로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친미국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기자의 사견으로 이루어진 기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객관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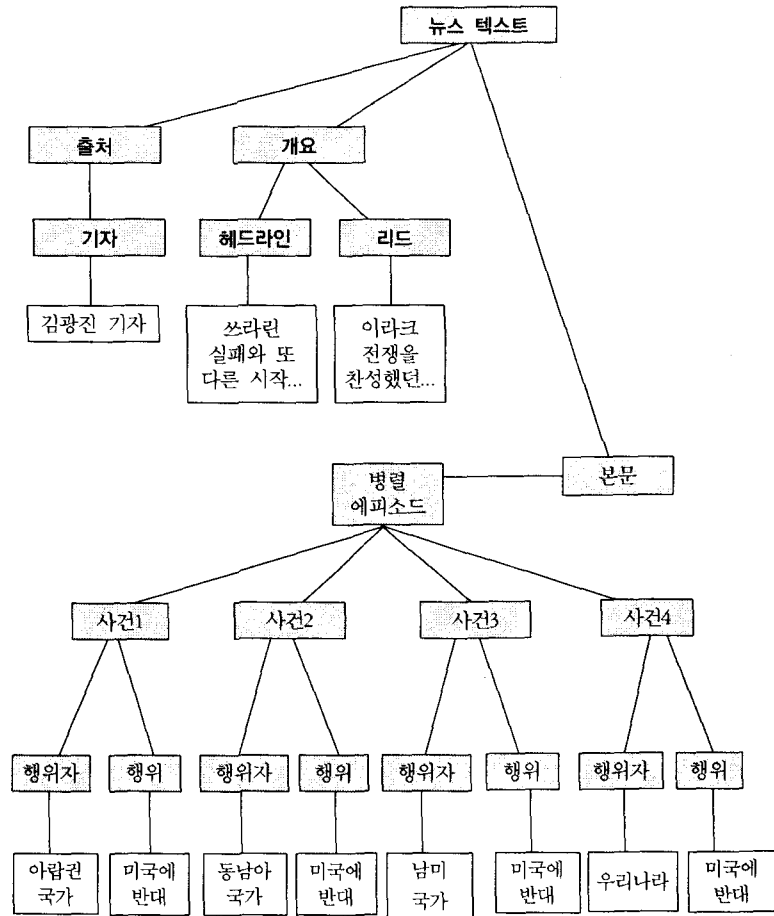
(5) 사건과 담론구조

① 사건구조 : 사건구조는 위의 표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순서에 있어 순차성이나 역차성 없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② 담론구조 :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사의 담론구조는 친미국가들이 미국의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상황을 서술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③ 일관성과 혼돈 : 이 기사는 친미국가들이 기존의 입장을 뒤엎고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을 실질적으로 반대함으로써 나타난 놀라운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특별히 혼돈을 일으킬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림 3> 7월 11일 오마이뉴스 기사의 담론구조



3) 제3국면 기사 분석: 2003년 11월 14일 기사에 대한 사건구조, 시간구조 및 담론구조

제3국면의 대표기사인 2003년 11월 14일 기사내용에 대한 사건구조, 시간구조 및 담론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표 4> 11월 14일 오마이뉴스 기사의 사건구조와 시간구조

사건구조	기사	시간구조
1	HL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막졌다” 서울역 광장에 들어선 파병반대평화캠프 권박효원 기자	-3
1	S1 노동계의 시국농성으로 일주일 넘게 천막이 들어선 서울역 광장에 ‘이라크 파병반대 평화캠프’가 합세했다.	-3
1	S2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4일 낮 12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3
1	S3 서울역 광장에는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의 시국농성 천막이 10개 가량 설치되어 있다.	-3
2	S4 이 자리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000~3000명 규모의 혼성부대 파병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
2	S5 이들은 “혼성부대 역시 약탈자인 점령군의 편”이라고 주장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차라리 민간긴급구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라크의 진정한 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2	S6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1월 17일부터 3일간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와 관련 “정부는 지금 이 시간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안보협의회 준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국민 누구와도 파병 성격과 규모, 시기와 형태에 대해 상의한 바 없는 마당에 미국 측과 파병규모를 상의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
3	S7 기자회견에 참석한 3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도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겨냥한 국민총궐기를 강조했다.	-1
3	S8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국은 이미 이라크전을 제3차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어떤 형태든 파병된 한국군은	-1

		3차 전쟁의 전투부대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한에 진행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4	S9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 역시 “노무현 정권은 16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만나 파병 시나리오를 마무리하려 한다.”며 “국회의원들은 파병안을 찬성하게 되어 있다.	0
4	S10	“국회로 보내기 전에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0
4	S11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범국민총궐기대회가 열리는 오는 15일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며,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천막은 총궐기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게 된다.	0

(1) 무엇을

① 헤드라인 : 헤드라인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막겠다” 서울역 광장에 들어선 ‘파병반대평화캠프’로 파병반대평화운동이 열렸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리드 : 리드는 헤드라인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규모 및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다.

③ 사건 : 이 기사는 이라크 전장에 우리나라 군인들의 파병건에 맞서 파병반대평화캠프가 열렸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사건은 비교적 시간의 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이를 보면

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4일 낮 12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시국농성에 돌입(S2).

나. 이 자리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000~3000명 규모의 혼성부대 파병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음(S4).

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국은 이미 이라크전을 제3차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어떤 형태든 파병된 한국군은 3차 전쟁의 전투부대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한에 진행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힘(S8).

라.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 역시 “노무현 정권은 16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만나 파병 시나리오를 마무리하려 한다.”며 “국회의원들은 파병안을 찬성하게 되어있다. 국회로 보내기 전에 막아내자.”고 호소함(S9-S10)으로 나타난다.

④ 헤드라인, 리드, 기사 : 이 기사는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나타나듯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막겠다.” 서울역 광장에 들어선 파병반대 평화캠프’로 사건의 내용을 비교적 시간의 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2) 누가

① 기사 출처 : 해당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오마이뉴스의 권박효원 기자가 전송한 기사라고 언급되어 있다.

② 정보원 : 전체 기사에서 정보원의 존재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다만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③ 뉴스 행위자 : 이 기사의 행위자는 S1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평화캠프’, S6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S8에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S9에서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어디서

① 장소 : 서울역 광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S1, S2, S3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② 장소구조 : 서울역 광장에서 파병반대국민들이 모여서 평화캠프를 연 것으로, 사건이 서울역 광장에서 일어났음이 명확하며 추후 장소 이동은 없다.

(4) 언제

① 시간 : 이 기사에서 드러난 시간 표현은 ‘4일 낮 12시(S2)’, ‘15일까지

(S11)'이며, 이는 4일부터 15일까지 이 쫓기대회가 계속된다는 명확한 시간표 현으로 볼 수 있다.

② 시간구조 : 시간구조는 0, -1, -2, -3의 단순한 시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③ 배경 : 이 기사의 배경은 S5에서 "훈성부대 역시 약탈자인 점령군의 편"이라고 주장,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차라리 민간긴급구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라크의 진정한 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S6에서 '파병 반대국민행동은 11월 17일부터 3일간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와 관련 "정부는 지금 이 시간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안보협의회의 준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국민 누구와도 파병성격과 규모, 시기와 형태에 대해 상의한 바 없는 마당에 미국 측과 파병 규모를 상의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함'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근본적인 사건의 배경이 되었음은 자명하다.

④ 논평 : 이 기사는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연 것에 대해 서술한 구조로, 기사에서 직접적인 논평의 부분은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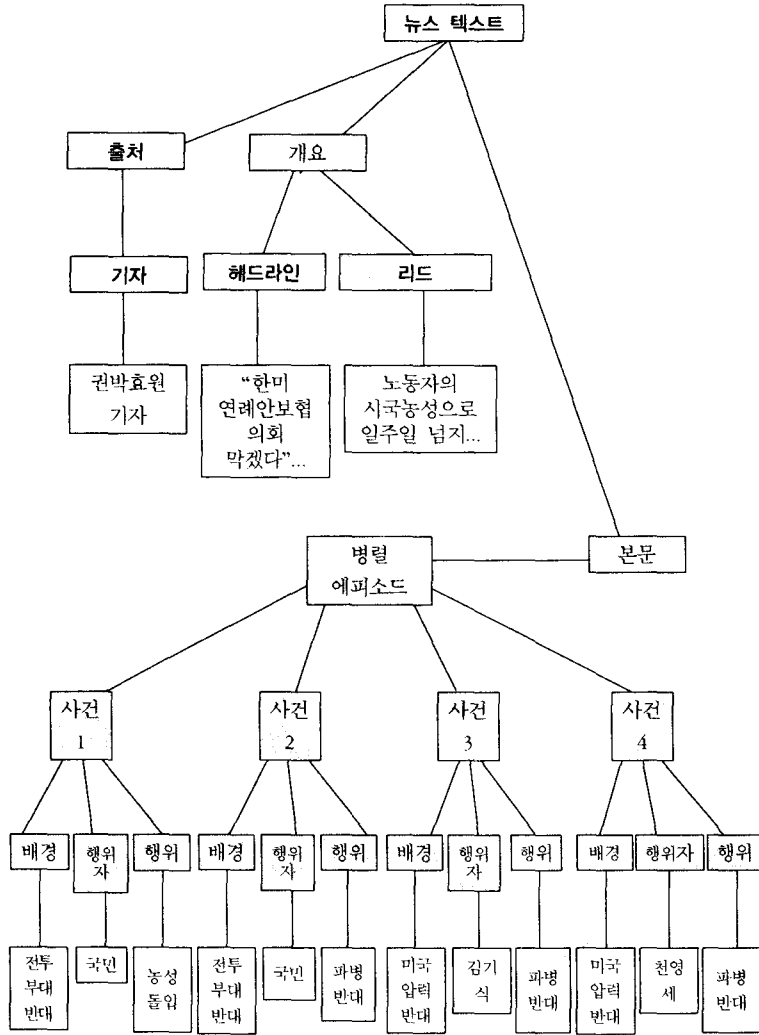
⑤ 뒤따르는 내용 : S11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범국민총궐기대회가 열리는 오는 15일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며,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천막은 총궐기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게 됨'을 통해서, 앞으로 이 쫓기대회는 꾸준히 지속되며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5) 사건과 담론구조

① 사건구조 : 사건구조는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시간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담론구조 :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사의 담론구조는 이라크 파병안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쫓기대회를 갖는 상황을 서술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11월 14일 오마이뉴스 기사의 담론구조



③ 일관성과 혼돈 : 이 기사는 이라크전에 우리나라 국군을 파병키로 한 정부의 제안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모여서 이들의 의사를 표명한 사건을 서술한 것으로, 특별히 혼돈을 일으킬 여지는 없어 보인다.

4) 제4국면 기사 분석: 2003년 12월 17일 기사에 대한 사건구조, 시간구조 및 담론구조

제4국면의 대표적인 기사인 2003년 12월 17일 기사내용의 사건구조, 시간구조 및 담론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표 5> 12월 17일 오마이뉴스 기사의 사건구조와 시간구조

사건구조	기사	시간구조
1	HL 후세인 체포 이후 “부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라크 전문가 향후 예상 “이라크의 직접 선거가 핵심일듯” 박지숙 기자	0
	S1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생포로 미군의 이라크 점령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S2 후세인 생포가 이라크와 미국 내의 향후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외신보도와 중동 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전망해 본다.	
1	S3 후세인 생포로 가장 단기적 직접적인 효과는 미국 내에서 부시의 지지율 급등이다.	0
1	S4 그동안 취임 이후 최저로 떨어진 지지율로 재선거가능성에 의심을 받던 부시는 후세인 생포 발표 다음날 조사된 NBC-웨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8%로 급등했다.	0
1	S5 후세인 생포 전달 조사된 부시의 지지율은 52%이었다.	0
1	S6 또한 같은 여론조사결과에서 미국인들의 이라크점령에 대한 지지가 급등했음이 나타났다.	0
1	S7 예상대로 후세인 생포 영향이 즉각적으로 부시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됐음을 알 수 있다.	0

		그러나 미국 내 여론 보도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이제 후세 인도 체포했으니 이라크전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고 미군이 집으로 돌아올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S8	베트남처럼 수렁에 빠져 끝없이 이라크에 묶여 있기를 바라지 않는 미국인들 사이에 후세인 체포를 계기로 미국이 승리를 선언한 후 가능한 빠른 시간에 이라크에서 철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S9	특히 앞으로 이라크 저항군들의 공격에 의해 미군 사상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보여진다.	
	S10	부시가 이라크 침공 당시 전쟁의 이유라고 밝혔던 대량 학살 무기도 전혀 발견되지 않고 위험 인물로 지목되던 후세인도 체포된 마당에 미군이 더 이상 점령을 하는 이유에 대한 회의론이 미군의 희생이 계속될수록 크게 부상하여 부시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S11	중동 문제에 관해 25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영국인 저널리스트 딜립 히로는 『Democracy Now』와의 인터뷰에서 후세인의 생포는 초단기적으로는 부시의 인기도를 올리는 데 기여하겠지만 수주 내지 수개월 이내에 이라크 저항군들의 공격은 더 격화되리라고 예상했다.	+1
	S12	히로는 저항군에 가담하는 이라크인들의 숫자가 더 늘어 날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금까지 미군의 점령에 반대하면서도 후세인의 복귀를 두려워해 저항군에 가담하지 않았던 이라크인들, 특히 시아파들이 저항군에 가담 내지 지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13	또한 후세인에게 적대적이었던 회교 근본주의자들도 후세인의 체포로 오히려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14	바그다드대학의 정치학 교수 하산 알 아니도 AFP와의 인터뷰서 “사담의 체포는 저항군에게는 큰 힘을 줄 것이다.	+1
	S15	이제 많은 이라크인들은 후세인 추종자로 불릴 걱정 없이 저항군에 참여, 미군의 점령에 대항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1
	S16		

S17	<p>또한 이제까지 미군은 이라크 내의 저항세력을 후세인 잔당으로 치부하며 악의 무리라고 불렀으나 후세인 체포 후 저항세력이 계속 될 경우 미국은 반후세인 반미군점령 독립운동 세력의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p>
2 S18	<p>지명한 아랍 문재 전문 저널리스트 로버트 피스크도 『Democracy Now』 인터뷰에서 이라크 저항군의 중요 이유는 미군의 강압적인 통치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세력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후세인의 체포에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p>
S19	<p>히로는 앞으로 미국 대선전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라크의 직접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p>
S20	<p>이라크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히는 시아파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알 시스타니는 반드시 직접선거로 선출된 이라크인들의 대표만이 이라크 주권을 대표할 수 있다며 선거 없이 미군에 의해 지명된 지도위원회 중심의 주권이양을 하는 미국의 계획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p>
S21	<p>후세인의 공포정치에 큰 희생을 당했던 이라크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시아파들은 이제 후세인의 공포에서 벗어나 과감한 정치적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p>
S22	<p>시아파 이라크인들은 주권이양을 위해 직접 선거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미군의 점령에 암묵적 용인을 했던 시아파들조차도 미군점령 반대에 적극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p>
S23	<p>히로는 직접선거를 요구하는 시아파의 목소리가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강력하게 대두될 것이며, 이 시기가 지나도 미군정이 직접 선거를 거부한다면 이라크의 정세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p>
S24	<p>미군의 꼭두각시라고 비웃음을 당하며 이라크인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통치위원회 중심의 주권 이양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이라크 내의 여론이라는 것이다.</p>
S25	<p>또한 이라크 내에서 대량학살 무기를 찾지 못하자 이라크의 민주화를 이라크 침공 이유로 내세웠던 부시가 직접선거를 요구하는 이라크 내의 목소리를 무작정 무시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p>

	<p>그러나 직접 선거를 하게 되면 시아파가 정치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경우 미국이 또 다른 악의 축으로 지명한 이란과 친밀한 시아파 정권이 이란-이라크 공동 전선을 이루어 아랍권에서 자주적 목소리를 낸다면 중동 내의 친미국가 수립이 목표인 미국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p>
<p>2 S27</p>	<p>내년 재선을 앞두고 직접 선거 없이 미국이 지명한 친미성향의 통치위원들에게 주권을 이양한 후 계속적으로 이라크 주둔을 계획하며 이라크 경제의 전면적 사기업화를 실시하려는 부시의 계획이 의도대로 진행될지 앞으로 2~3개월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p>

(1) 무엇을

① 헤드라인 : 헤드라인은 ‘후세인 체포 이후 “부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라크 전문가 향후 예상 “이라크의 직접 선거가 핵심일 듯”’으로 후세인 체포 이후 부시의 지지율 상승과 이에 대한 이라크 전문가들의 예견에 대한 기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② 리드 : 리드는 미국이 사담 후세인의 생포로 맞은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 기사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③ 사건 : 이 기사는 후세인 체포 이후 전에 비해 달라진 이라크와 부시의 입장에 대한 전망을 다룬 것으로, 사건은 비교적 시간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한 이라크 전문가들의 의견과 예측을 병렬로 나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① 취임 이후 최저로 떨어진 지지율로 재선가능성에 의심을 받던 부시는 후세인 생포 발표 다음날 조사된 NBC-웨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8%로 급등(S4), 예상대로 후세인 생포 영향이 즉각적으로 부시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됐음을 알 수 있음(S7), ② 영국인 저널리스트 딜립 히로는 『데모크라시 나우(Democracy Now)』와의 인터뷰에

서 후세인의 생포는 초단기적으로는 부시의 인기를 올리는데 기여하겠지만 수주 내지 수개월 이내에 이라크 저항군들의 공격은 더 격화되리라고 예상함(S12), 바그다드대학의 정치학 교수 하산 알 아니도 AFP와의 인터뷰에서 “사담의 체포는 저항군에게는 큰 힘을 줄 것이다. 이제 많은 이라크인들은 후세인 추종자로 불릴 걱정 없이 저항군에 참여, 미군의 점령에 대항할 것이다.”라고 밝힘(S15-S16), 아랍 문제 전문 저널리스트 로버트 피스크도 『데모크라시 나우』 인터뷰에서 이라크 저항군의 중요 이유는 미군의 강압적인 통치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세력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후세인의 체포에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함(S18), 내년 재선을 앞두고 직접 선거 없이 미국이 지명한 친미성향의 통치위원들에게 주권을 이양한 후 계속적으로 이라크 주둔을 계획하며 이라크 경제의 전면적 사기업화를 실시하려는 부시의 계획이 의도대로 진행될지 앞으로 2~3개월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S27)으로 나타난다.

④ 헤드라인, 리드, 기사 : 이 기사는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나타나듯이, ‘후세인 체포 이후 “부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라크 전문가 향후 예상 “이라크의 직접 선거가 핵심일 듯”’으로, 이에 대해 이라크 전문가들이 언급한 내용을 서술로 풀어내고 있는 기획기사로 볼 수 있다.

(2) 누가

① 기사 출처 : 박지숙 기자가 전송한 기사라고 언급되어 있다.

② 정보원 : 전체 기사에서 정보원의 존재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라크 전문가들의 예견에 관한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③ 뉴스 행위자 : 이 기사의 행위자는 S3에서 ‘부시(의 지지율 급등)’, S12에서 ‘영국인 저널리스트 딜립 히로’, S15에서 ‘바그다드대학의 정치학 교수

하산 알 아나', S18에서 '저명한 아랍 문제 전문 저널리스트 로버트 피스크'로 나타나고 있다. 이 뉴스는 이라크 전문가들의 전망을 다룬 기사이기 때문에, 행위자를 전문가들로 볼 수 있다.

(3) 어디서

① 장소 : 이 기사는 이라크 전문가들이 후세인 생포 후 달라질 전망을 예견하고 있기에, 장소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② 장소구조 : 기사에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따라서 장소구조에 대한 언급 역시 이 기사에서 찾아 볼 수 없다.

(4) 언제

① 시간 : 이 기사는 이라크 전문가들이 후세인 생포 후 달라질 전망을 예견하고 있기에, 시간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② 시간구조 : 시간구조는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0, +1으로 볼 수 있다.

③ 배경 : 이 기사의 배경은 S13에 나오는 이라크 전쟁에 따른 미군의 이라크 점령을 들 수 있다. 이라크전 이후 생겨난 저항세력들의 저항이 후세인 체포 이후에 어떠한 양상을 가질 것인가의 예측이 기사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④ 논평 : 이 기사는 후세인 체포 이후 미국의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이라크 전문가들이 미국의 앞날이 그리 수월하지는 않을 것임을 조심스럽게 전망한 기획기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26에서 '그러나 직접 선거를 하게 되면 시아 파가 정치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경우 미국이 또 다른 악의 축으로 지명한 이란과 친밀한 시아파 정권이 이란-이라크 공동 전선을 이루어 아랍권에서 자주적 목소리를 낸다면 중동 내의 친미국가 수립이 목표인 미국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음', S27에서 '내년 재선을 앞두고

직접 선거 없이 미국이 지명한 친미성향의 통치위원들에게 주권을 이양한 후 계속적으로 이라크 주둔을 계획하며 이라크 경제의 전면적 사기업화를 실시하려는 부시의 계획이 의도대로 진행될지 앞으로 2~3개월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나타나듯이, 앞으로의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⑤ 뒤따르는 내용 : S27의 '부시의 계획이 의도대로 진행될지 앞으로 2~3개월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을 통해서, 앞으로 부시의 이라크에 대한 계획 및 진행이 세인의 관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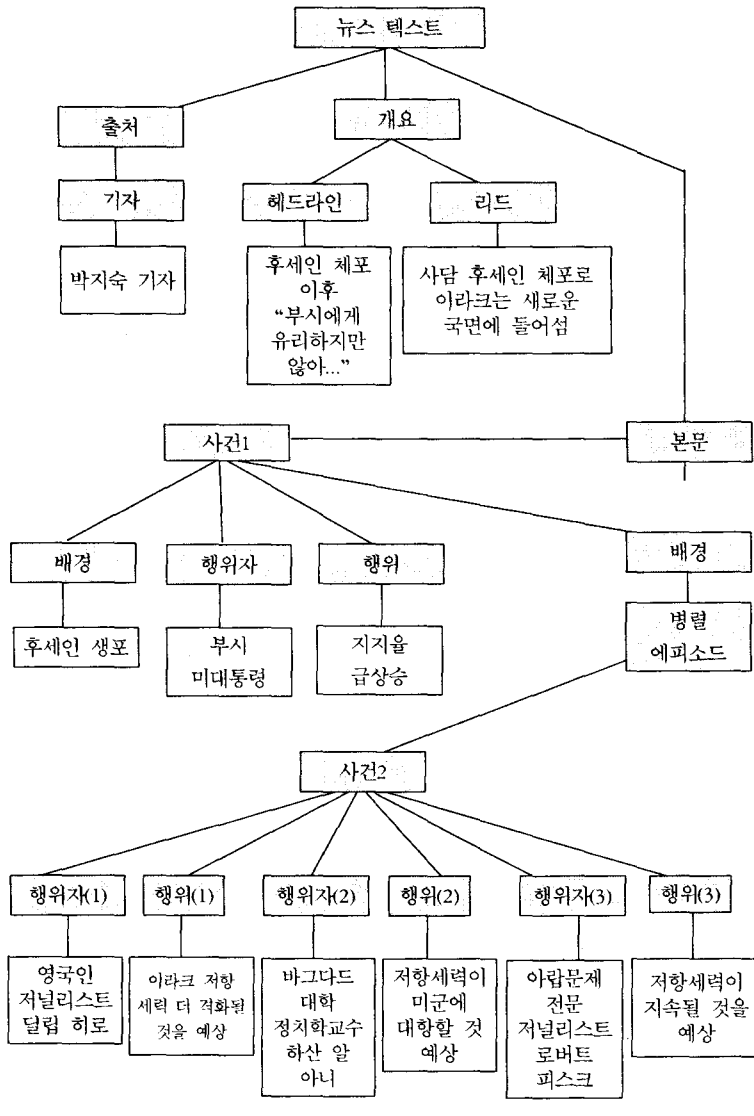
(5) 사건과 담론구조

① 사건구조 : 사건구조는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시간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담론구조 :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사의 담론구조는 사담 후세인 생포 후 지지율이 급격하게 반등한 부시의 입장과, 생각보다는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난항일 것이라 예상하는 이라크 전문가들의 의견을 서술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③ 일관성과 혼돈 : 따라서 이 기사는 전문가들의 예견으로 이루어진 기획 기사로서, 기사 내용에 특별히 혼돈을 일으킬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림 5> 12월 17일 오마이뉴스 기사의 담론구조



5. 결론

이상과 같이, 오마이뉴스에 대한 기사를 분석한 결과, 이번 미국과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전체 담론의 흐름은 전쟁 자체가 아닌, 전쟁과 연관된 이슈들, 특히 '전쟁 자체의 부당성에 대한 부각', '미국 정부와 부시 대통령의 아만성과 부도덕성에 대한 의혹', 나아가 '한국군의 파병의 부적절성' 등과 같은 의제들을 중심으로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담론의 지향점은 '반전 반미' 정서의 확대와 연계되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제1국면의 대표 기사에서는 이라크전 발발과 함께, 시민단체가 반전의지를 표명하면서 시위에 나섰다는 뉴스가 제시된다. 이는 반전에서 반미로 반감정서가 자연스럽게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언론매체들이 전쟁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전쟁의 초기 상황, 무력적 충돌, 파괴현장 및 미래의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반해, '오마이뉴스'는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전쟁에 대한 반대시위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사실 기사보다는 처음부터 의견 기사 및 비판 기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후 '지하철에서의 반전운동',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반전운동', '한국군 파병의 문제성' 등의 기사들로 이어지면서 '반전 반미'는 물론이고 '한국군의 파병'에 대한 반대 담론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2국면에의 기사에서는 그동안의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각국의 정치적 입장 및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을 명분 없는 제국주의적 욕망을 표출시킨 전쟁으로 의미화 시키고 있다. 이 기사 또한 반전의지를 강력히 추구하고 저항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특성들은 기존의 언론매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선동적 요소라고 보여 진다.

제3국면의 기사에서는 미정부의 이라크전에 대한 반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을 함으로써 반전, 반미정서를 유도해내고 있거나, 파병반대시

<표 6> 오마이뉴스 기사의 국면에 따른 의제와 담론의 변화 추이

		제 1국면 이라크 전쟁 발발에서 바그다드 함락까지		제 2국면 전후 불안기		제 3국면 테러기		제 4국면 잠정적 종결기	
		이라크 전쟁 발발	대규모 지상전 임박	바그 다드 공습	바그 다드 함락	이라크 민생 고통	자살 폭탄 테러 본격화	자살 폭탄 테러 심화	후세인 생포
국면	연이던	'국민의 힘'이란 단체의 이라크전 반대시위	지하철에서 반전운동이 전개됨	반전평화 운동이 공주에서 열림/경찰과 마찰을 빚음/국회의원 사무실에 파병반대 성명서 제출	이라크 참전 중인 호주군의 역할에 대한 연대기식 시술 및 소개	그동안 이라크전을 둘러싼 세계각국의 입장을 점검, 이번 전쟁을 재국주의적 전쟁으로 의미화	미정부의 이라크전 명분 제시(후세인·9·11연관/대량살상 무기 발견되지 않음/반감 급증/미군에 대한 보복증가	시민단체가 파병의 지 표명, 시위를 벌임	후세인 체포가 부위의 지지율 및 선거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소개/반미세력 증가 우려 제시/전후 이라크에 대한 예측 제시
	결론	반전, 반미정서 현황에 대한 보도	명분 없는 전쟁 비판, 반전운동 확산 동분위기	다양한 형태로 반전시위가 전개되고 있음	사실에 대한 객관적 전달과 함께 연대관계에 따른 호주군 참전 지적	반전의미 유발 및 저항을 강렬히 촉구	미군의 명분 없는 전쟁 시기에 대한 비판 유발, 반전의미, 반전정서 유도	반전 및 파병반대에 대한 사실 전달	후세인 체포 이후에도 미군이 갖는 불리한 상황 예측/침공의 피해 지적

위를 보도하고 있다. 이라크 테러세력의 테러가 급증함에 따라 미군이 우리나라에 강력히 파병 요청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반전, 반미의지 또한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제4국면은 후세인 체포와 함께 잠정적 종결기로 분류될 수 있는 시기의 뉴스기사이다. 여기서 기사는 단순한 후세인 체포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시의 정치적 활동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타진하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라크 내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하는 의혹과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불리한 입지상황 및 침공이 지닌 피해를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오마이뉴스는 이번 전쟁과 관련하여, 일반 언론매체가 지향하는 사건과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려는 사실보도나 객관보도 및 공정보도에 주력하기 보다는, 사건과 사안에 대한 견해 및 판단, 나아가 평가를 근간으로 보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른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 저널리즘'의 특성 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즉, 보도의 사실성, 객관성 및 공정성의 확보보다는 의견성, 주관성 및 방향성의 확보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번 전쟁과 관련하여 오마이뉴스는 새로운 의제 설정의 매체로 떠오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전쟁과 관련된 주요 의제들은 '미국의 전쟁 발발 의도에 대한 의혹', '미국의 의도적인 적과 악의 이중분할에 대한 의구심', '미국의 새로운 제국주의적 의도에 대한 우려', '전쟁에 대한 국내의 보수와 진보 세력의 의식 차이', '한국군 파병에 따른 문제점 부각', '한국군 파병과 관련된 보수와 진보 세력의 충돌' 등이었다. 이들 의제들은 전적으로 오마이 뉴스 같은 인터넷 언론들이 주도하였으며, 기존의 언론매체들은 전쟁 자체의 과정을 쫓는데 급급하여 관련 의제들의 생성에 대해 소홀하였으며,

각각의 의제들에 대한 담론의 구성 역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셋째, 오마이뉴스는 이번 전쟁을 다룸에 있어서도 기존의 언론매체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대안매체’로서의 가능성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기존의 매체들이 미국과 부시 대통령의 견해나 시각에 동조하고 미국 신문이나 방송 매체의 보도를 그대로 방영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시각을 수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마이뉴스는 철저하게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전쟁에 대한 다른 시각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쟁에 대한 의미를 기존 매체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군과 영국군 공격의 부당성을 인식시키려 하고 있고, 미국과 부시 행정부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시각이 아닌 피해 당사자인 이라크나 이슬람권의 반응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언론 매체에 의지하지는 않지만 일반기자들의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마이뉴스로 대표되는 인터넷 언론은 이번 전쟁을 보도하면서 새로운 대안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사회의 주요 이슈나 의제들에 대한 설정 매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의제들에 대한 담론을 이끄는 언론 매체로서의 잠재력을 인시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이 중심 언론 매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의견의 중심의 보도방향’, ‘비전문적인 일반 기자들의 사건과 사안 처리에 있어서의 비전문성 및 비숙련성’, ‘냉철한 판단력보다는 정서나 감성에 소구되어 특정 방향으로 담론을 몰아가는 방향성’, ‘의견과 주관에 치우쳐서 형성되게 되는 불공정성’,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 우호적인 편향성’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다.

Ⅱ 참고문헌

- 김창룡·장호순 (2001). 『테러와 전쟁보도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정기 외 (1999). 『한국언론의 병리』.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선희 (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 오마이뉴스 기사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 백선기 (1997a). 『보도의 기호학』.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 백선기 역 (1997b). 『텔레비전 뉴스』. 한울.
- _____ (2001). 『사이버선거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3a). 『정치담론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3b). TV 보도영상의 서사구조와 의미구조. 『한국방송학보』.
- _____ (2003c). 『텔레비전 영상기호학』. 미디어24.
- 백선기 역 (2004a). 『미디어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4b). 『한국 언론보도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정우 (1998). 『전쟁과 언론의 역할 : 국익과 진실보도』. 서울: 나남.
- 손철성 외 역 (2004). 『테러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 송종길·이동훈 (2003). 『사회위기와 TV 저널리즘』.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연호(2001). 현장포커스: 표준의 파괴 인터넷 신문. 『한국언론학보』, 제47집.
- 유홍식 (2003).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방송저널리즘 윤리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보도의 선정성·폭력성과 디지털 영상조작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2003 여름호.
- 윤영철 · 나승안 (1999). 신문 뉴스의 '가상 공간 저널리즘' 활용. 『언론과 사회』, 24호.
- 정윤식 (2003).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규제. 『사회과학연구』, 제42집.
- 진행남 (2002).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 서울: 나남.
- 최효찬 (1998). 『테러리즘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중호 (2004). 『빅브라더 아메리카 : 9·11 테러와 표현의 자유』. 나남출판.
- 홍성구 (2003). 인터넷 신문의 성장과 언론 질서의 변화. 『사회과학연구』, 제42집.
- 홍재성·권오룡 역 (1994). 『언어와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황용석 (2000). 『인터넷 뉴스 사이트』. 한국언론재단.

미디어 오늘. 2004. 1. 8

한겨레. 1998. 9. 29

- Abercrombie, N. (1980). *Class, Structure and Knowledge*. Oxford : Basil Black.
- Allan, S. (1998). News from NowHere : Televisual News Discourse and the Construction of Hegemony in Bell, A. & Garrett, P.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Blackwell Publisher.
- Baek, S. G. (2004a). *Television News, Image and Semiotics*, Seoul: Hanul Academy.
- Baek, S. G. (2004b). *News, Signs and Culture*, Seoul: Hanul Academy.
- Bavelas, J. B., Rogers, L. E. & Milar, F. E. (1985). Interperational Conflict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4. Academic Press.
- Beaugrande, R. D. (1985). Text Linguistics in Discourse Studies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1. Academic Press.
- Bell, A. (1991). *The Language of News Media*. Oxford : Blackwell.
- Bell, A. (1996). Text, time and technology in news English in Sharon Goodman and David Graddol (eds), *Redesigning English ; New texts, New Identities(The English Language, Past, Present and Future, Book4*, London : Routledge,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 Bell, A. (1998). The Discourse Structure of News Stories in Bell, A.& Garrett, P.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Blackwell Publisher.
- Berger, P. & Luckman, T. (1967).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Anchor Books.
- Berkowitz, D. (1997). *Social Meanings of News*. Sage.
- Cicourel, A. V. (1985). Doctor-Patient Discourse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4. Academic Press.
- Corsaro, W. A. (1985). Sociological Approaches to Discourse Analysis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1. Academic Press.
- Fairclough, N. (1989). *Language and Power*. Longman.
- Fairclough, N. (1992). "A social theory of discourse",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 Fairclough, N. (1994).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Arnold.
- Fairclough, N. (1998). Political Discourse in the Media in Bell, A.& Garrett, P.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Blackwell Publisher.
- Ferrara A. (1985). Pragmatics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2. Academic Press.
- Halliday, M. A. K. (1984). *Explorations in the Functions of Language*,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 A. K. (1985). Dimensions of Discourse Analysis: Grammar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2. Academic Press.
- Hartley, J. (1982). *Understanding News*. London: Methuen.
- Heritage, J. (1985). Analyzing News Interviews: Aspects of the Production of Talk for an Overhearing Audience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3. Academic Press.
- Kasher, A. (1985). Philosophy and Discourse Analysis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1. Academic Press.
- Kress, G. (1983). Linguistic and ideological transformation in news reporting in H.Dawis & P. Walton (eds), *Language, Image, Media*. New York: St. Martin's Press.
- Kress, G. (1985). Ideological structures in discourse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4. Academic Press.
- Jefferson, G. (1985). An Exercise in the Transcription and Analysis of Laughter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3. Academic Press.
- Jensen, K. (1995). *The Social Semiotics of Mass Communication*. Sage.
- Johnson, N. S. (1985). Extracting the Proof from the Pudding: Coding and Analyzing Experimental Protocols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2. Academic Press.
- Johnston, J. R. (1985). The Discourse Symptoms of Developmental Disorders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3. Academic Press.
- King, C. (trans.). (2000). *Semiotics and the Analysis of Film*. Indiana Univ. Press.

- Kintsch, W. (1985). Text Processing: A Psychological Model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2. Academic Press.
- Kopperschmidt, J. (1985). An Analysis of Argumentation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2. Academic Press.
- Kress, G. (1985). Linguistic and ideological transformation in news reporting in H. Davis & P. Walton (eds.), *Language, Image, Media*. New York: St. Martin's Press.
- Kress, G. & Leeuwen, T.V. (1998). Front Pages: (The Critical) Analysis of Newspaper Layout in Bell, A. & Garrett, P.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Blackwell Publisher.
- Scannell, P. (1998). Media-Language-World in Bell, A. & Garrett, P.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Blackwell Publisher.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 van Dijk, T. (1985a). Introduction: Discourse Analysis as a New Cross-Discipline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1. Academic Press.
- van Dijk, T. (1985c). Introduction: Dialogue as Discourse and Interaction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3. Academic Press.
- van Dijk, T. (1985d). The Role of Discourse Analysis in Society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4. Academic Press.
- van Dijk, T. (1985e). Introduction: Levels and Dimensions of Discourse Analysis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2. Academic Press.
- van Dijk, T. (1988). *News Analysis: Case Studies of International and Nation News in the Pres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van Dijk, T. (1988). *News as discours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van Dijk, T. (1991). Interdisciplinary study of news as discourse, in Klaus Bruhn Jensen and Nicholas W. Jankowski (eds.) *A Handbook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London and N.Y. Routledge.
- van Dijk, T. (1994). Discourse and cognition in society, in D. Crowley & D.

- Mitchell(ed.), *Communication Theory Today*. Polity Press.
- van Dijk, T. (ed.). (1997a). *Discourse as Structure and Process*. Sage.
- van Dijk, T. (ed.). (1997b).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Sage.
- van Dijk, T. (1998). Opinions and Ideologies in the Press in Bell, A. & Garrett, P.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Blackwell Publisher.

(최초 투고 및 최종원고 제출 2005. 12. 1)

Coverage Patterns of the Internet News Media on the 'US-Iraq War' and its Discourse Structure

With an emphasis of analysing time and discourse structure of the

'Oh My News' news items

Seon-Gi Baek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verage patterns of the Korean internet news media on 'US-Iraq War' and its meaning and discourse structure. The internet news media was recently established and become a popular news media to compete with old news media in Korea.

The author selected the 'Oh My News' as a representative internet news media for his analysis, and collected its news items from Mar. 20, 2003 to Dec. 17, 2003. on the basis of 4 different phases of the war. He analysed the whole of news items with various semiotic and discourse analytic methods, especially applying for Bell's concepts of time and discourse struct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of all, it was found that the 'Oh My News' tended to cover this war so different ways as the old news media did. It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procedure of war, especially, battlefields, fighting between US and Iraq, damages and casualties. But, instead, it paid attention to many doubts about intention of US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Bush, dichotomous shift between pro-America and anti-America, rightness of dispatching Korean army into Iraq, etc. Secondly, it functioned as a kind of alternative media to speak up different voices comparing with those of old media. It tended to suggest different perspectives and opinions, while the old media tended to follow American perspectives and opinions. Thirdly, it became as a kind of new media setting agendas for this war in Korean society. It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for setting agendas for various issues related with this war.

In conclusion, the internet news media has recently become a kind of new news media for suggesting alternative or different opinions, setting agen-

das, initiating discourses, etc., even though it still has many problems of becoming so called orthodox news media.

Key words : Internet Media, Oh My News, US-Iraq War, Discourse, Time Structure